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특거어르신가정 다섯집 새가족!

안순자 할머니(79세)

10년 전 큰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모진 삶을 견뎌내며 살아 오셨는데 2달 전 작은아들마저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날들에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뼈마디들은 심한 관절염으로 다 틀어져 보행보조기 없이는 한걸음도 옮기기 힘들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많이 걸으시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한겨울 찬바람으로 달려려 오늘도 동네를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이효순님(47세)

나이가 보면 사회활동이 왕성할 때이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협착증 등으로 경제활동은 커녕 집안일조차 힘들어 곳곳에 쌓여있는 옷가지와 알 수 없는 짐들로 겨우 쪼그리고 누울 자리만 남았습니다. 치료비와 늘어만

가는 빚, 우울증으로 청소년정신 상담을 받고 있는 딸.... 엄마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참이웃 명단

(22년 4월 현재)

- | | | | | | | |
|-----|-----|-----|-----|-----|-----|-----|
| 이인순 | 정순녀 | 김요지 | 차 영 | 최정자 | 김상운 | 신자섭 |
| 차계옥 | 곽병채 | 김숙자 | 김순남 | 김요한 | 정길웅 | 김점순 |
| 박순녀 | 허필전 | 김학규 | 장정규 | 김기련 | 김춘자 | 박찬숙 |
| 이효순 | 안순자 | 김억두 | 유성애 | 정애영 | 민월분 | 조흥준 |
| 안상만 | 유은미 | 정용기 | 강상규 | 김동우 | | |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후 / 원 / 계 / 좌

국 민 : 656501-01-250453

농 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Daum 또는 NAVER, ZUM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망의샘터 를 검색하세요.

복지선교회 소망의샘터

2022 봄호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사랑들



복지선교회 소망의샘터 2022 봄호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www.ever.or.kr

☎ 21037 |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인 '틈새 없는 가정 나눔결연사업'

[서울뉴스1 김흥준 본부장] 소망의샘터는 지난 20일 '틈새 없는 가정 나눔결연사업'에 성금 13,800,000원을 계산2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인 '틈새 없는 가정 나눔결연사업'은 후원자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가정과 결연을 하여 매월 일정액의 현금·물품 등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희용 대표회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과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망의샘터는 2017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성금 누적액은 총 42,360,000원에 달한다. 계산2동 정영임 동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소중한 성금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계산2동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38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입력 2022.01.21. 11:1 흥준 본부장 heungjk@naver.com
출처 : 서울뉴스1 (<http://www.seoulnews1.com>)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홀로계시는

독거가정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의의가 있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동참하다 보니 성금 전달액이 꽤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망의샘터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소망의샘터를 믿고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저희 소망의샘터는 올해 초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만 없어서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한계는 자신이 만들어 낸다고 했으며 고통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지만 강인한 사람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가정 다섯집 새가족!

김기련 할아버지(83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 눈은 이미 시력을 잃은 상태고 왼쪽마저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생활에 불편한 상태에 와상환자로 누워계시는 할머니의 대소변 수발하며 잠조차 편히 주무시기도 힘든 상황을 견디시지만 매일 사용되는 거저귀 값과 병원비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박찬숙 할머니(70세)

뜨개질 솜씨가 수준급이신 할머니는 집안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놓으셨는데 지금은 유방암과 폐암으로 수술 후 힘든 항암치료를 겨우 이겨냈는데 다시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하루하루를 병과 사투중이십니다.



김춘자 할머니(83세)

일찍 세상을 떠난 며느리와 암치료중인 아들을 대신해 홀로 남은 손자를 양육을 맡으신 할머니 노환으로 아픈 본인 몸은 돌볼 엄두도 못 내고 행여나 어린 손주 제대로 못 먹일까 마음 다칠까 전전긍긍이십니다.

